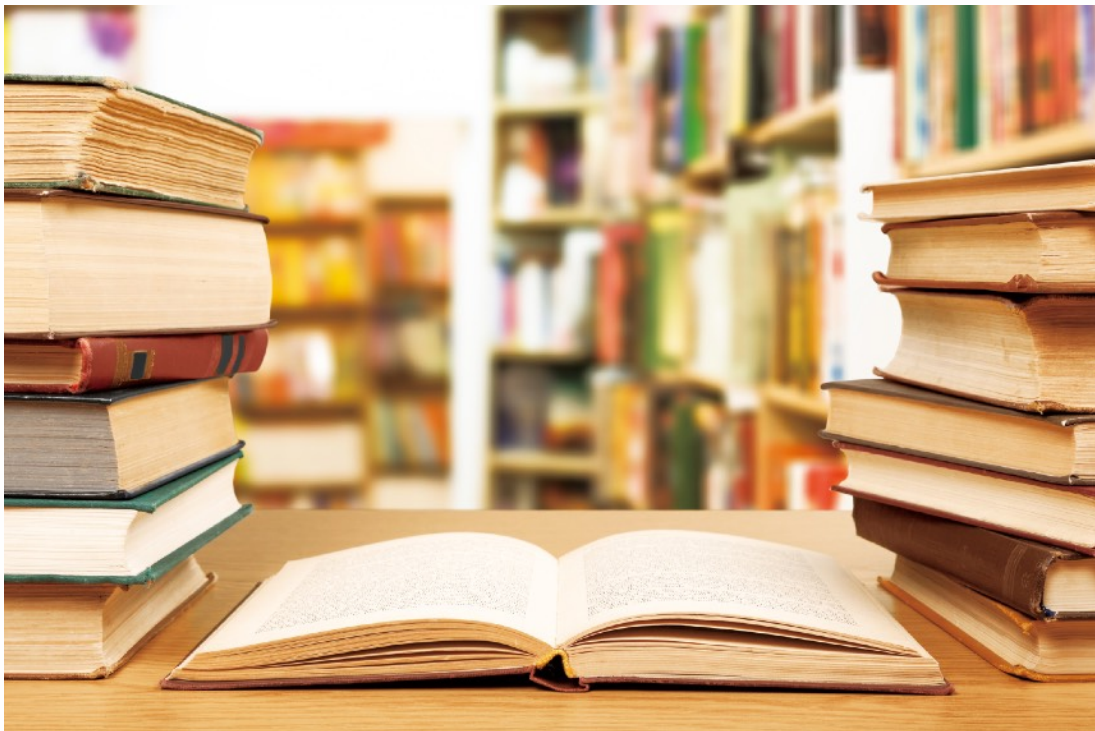


주요 내용

1. [한국인의 중국/일본 호감도]
2030세대,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다!'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1) AI에 대한 세계 28개국 인식 조사
 - 2) 국내 다문화 학생 수 변화 추이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2030세대,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개최국 중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남겨준 이미지는 무엇일까? 아마도 쇼트트랙 경기에서의 중국의 텃세가 아닐까? 중국은 반칙을 해도 걸리지 않고,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반칙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격패 당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반중 정서가 커졌다. 특히 연령별로 2030 젊은 세대층에서 반중 정서가 강하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어떨까? 2019년 한일군사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그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한국 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났고 당시 일본에 대한 감정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우리와 붙어 있는 중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런데 이들 이웃 국가와 우리 사이에는 국민 감정에서 적대적 의식이 보이고 있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넘버스 131호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살펴 본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자 한국인으로서 인접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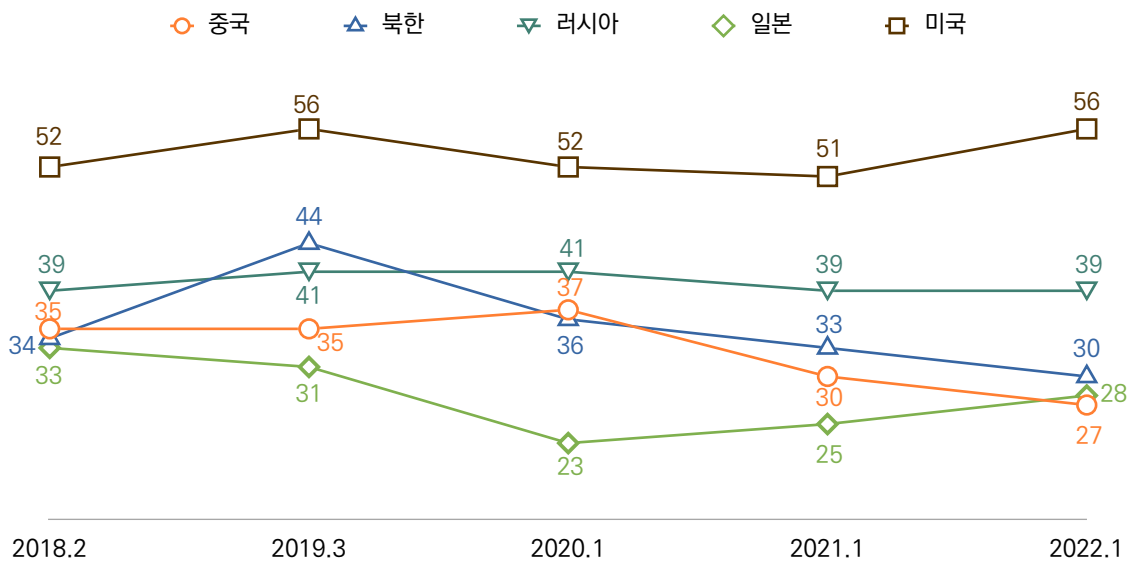


01

한국인, 주변 5개국 가운데 중국 호감도가 가장 낮아

- ▶ 한반도 주변 5개국에 대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 온도(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를 질문했을 때, 예상대로 미국이 56도로 가장 높았다. 가장 온도가 낮은 국가, 즉 호감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감정온도 27도로 우리와 전통적 앙숙인 일본(28도)과 비슷했지만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호감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 ▶ 흥미로운 것은 북한에 대한 감정 온도는 30도인데, 이는 일본, 중국보다 더 높은 감정온도이다. 북한은 적대적 관계이기는 하지만 한 민족이라는 정서적 유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한반도 주변 5개국 감정 온도 (일반국민)** (단위 :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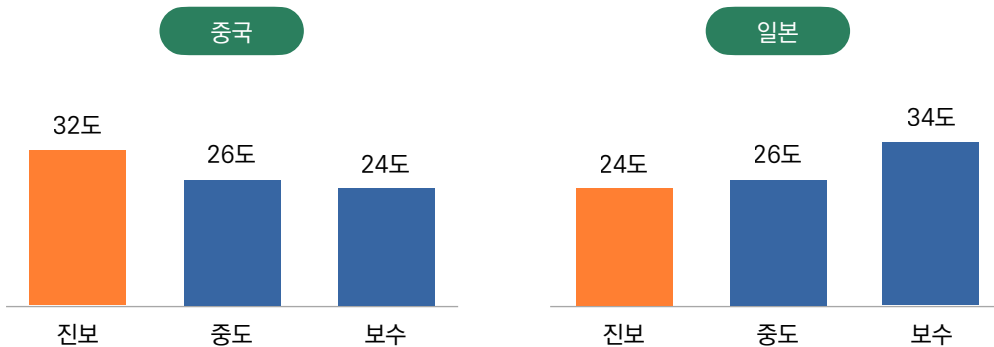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59호(2020.01.13.)와 163-1호(2022.01.12)를 병합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감정온도 : 0도-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 50도-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

◎ 진보도 중국을 싫어한다!

- ▶ 진보일수록 중국에 가깝고 보수일수록 일본에 가까운 특성이 나타나는데, 진보도 중국에 대한 감정온도가 32도 밖에 안돼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얼마나 폭넓은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중국·일본에 대한 감정온도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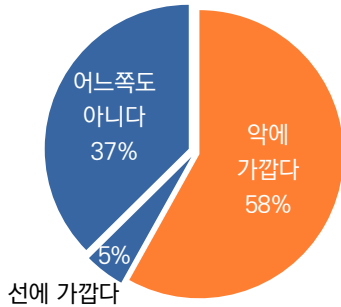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163-1호, 2022.01.12.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1.07-10)
 **감정온도 : 0도-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 50도-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

◎ 중국은 악에 가깝다 58%

- ▶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넓을 뿐만 아니라 강렬하다.
- ▶ 중국에 대해 악에 가깝다 58%, 선에 가깝다 5%로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치우쳐 있다. 이 정도 감정이면 중국은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혐오와 반중 정서에 가깝다.

[그림] 중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나? (일반국민)



*자료 출처 : 시사인 717호, '반중정서 리포트'(2021.6.17.),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구일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이 기사의 조사 자료는 <한국리서치,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1. 5월12일~17일 조사>에 근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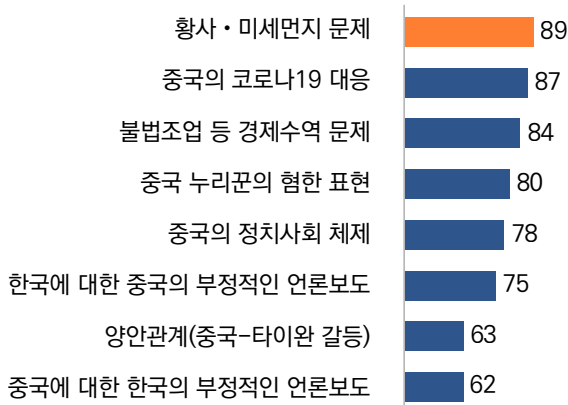
02

한국인은 왜 중국을 싫어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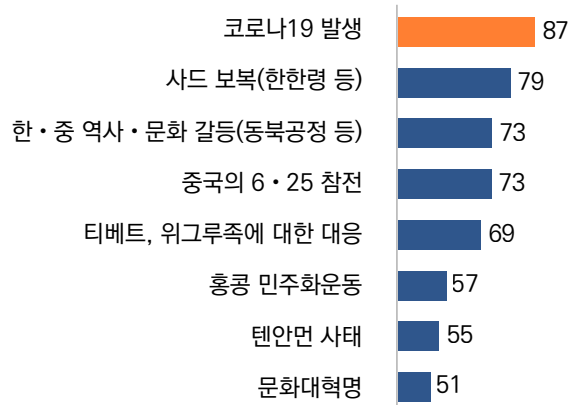
1) 부정적 사건의 누적('황사·미세먼지' 1위)

- ▶ 중국에 대한 구체적 행위와 사건에 대해 긍부정을 질문했을 때, 황사·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불법조업 문제, 사드보복 등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매우 컸다.
- ▶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막연히,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다. 황사·미세먼지, 불법조업 문제 등 과거부터 지속된 갈등 상황에 코로나 문제가 겹치고, 거기에 중국 누리꾼의 험한 표현, 중국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등 감정적인 문제까지 얹히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더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한 감정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그림] 행위·사건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복수응답, 상위 8개, %)



[그림] 역사적 사건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복수응답, 상위 8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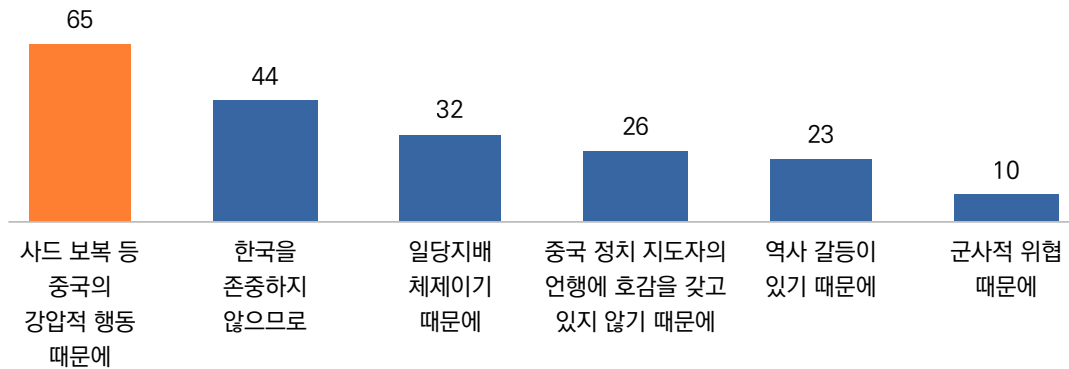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시사인 717호, '반중정서 리포트'(2021.6.17.),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구일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이 기사의 조사 자료는 <한국리서치,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1. 5월12일~17일 조사>에 근거함.

◎ 한국인은 왜 중국을 싫어할까? 2) 중국의 강압적 행동

- ▶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방적 태도 때문이다.
- ▶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 행동’(65%), ‘한국을 존중하지 않으므로’(44%) 등의 응답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중국의 무례하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반감이 중국을 싫어하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림] 한국이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일반국민,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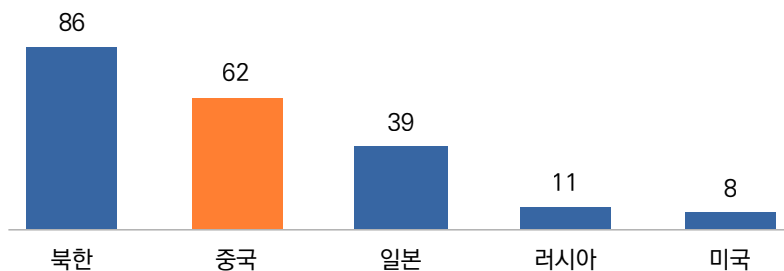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 '2021년 제9회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2021.9. 28,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한국 1012명 일본 1000명, 한국-대면 면접조사 일본-방문유치회수법, 한국-2021.8.26.-9. 11 조사, 일본-2021 8.21~9.1 12 조사)

◎ 한국인은 왜 중국을 싫어할까? 3) 중국의 군사적 위협

- ▶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을 우리의 큰 군사적 위협 대상으로 인식하므로 중국을 더 싫어한다.
- ▶ 중국을 군사적 위협 국가로 인식하는 비율이 62%로 우리나라의 현재 대치 관계인 북한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이제 중국은 불신과 혐오의 대상을 넘어서 적대적 대상으로까지 여기게 된 것이다.

[그림]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일반국민, 복수응답, %)



*자료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 '2021년 제9회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2021.9. 28,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한국 1012명 일본 1000명, 한국-대면 면접조사 일본-방문유치회수법, 한국-2021.8.26.-9. 11 조사, 일본-2021 8.21~9.1 12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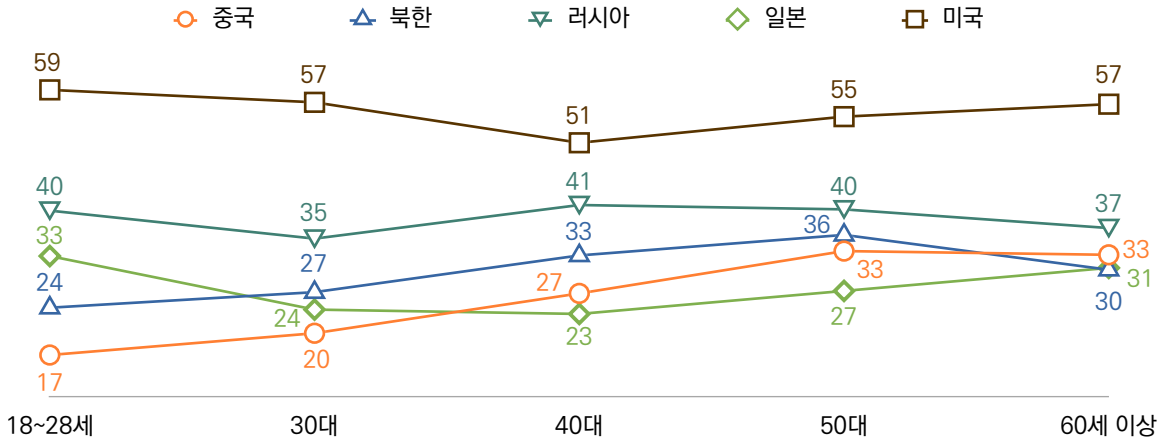
03

2030세대,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다!'

- ▶ 중국 호감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20대와 30대의 호감도가 낮은 영향이 크다. 20대의 중국 호감 온도는 17도로 33도 내외의 온도를 보인 50대와 60대의 절반 밖에 안될 정도로 중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 ▶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중국보다 일본 호감도가 더 낮은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한반도 주변 5개국 감정 온도 (일반국민, 연령별, 2022년)**

(단위 :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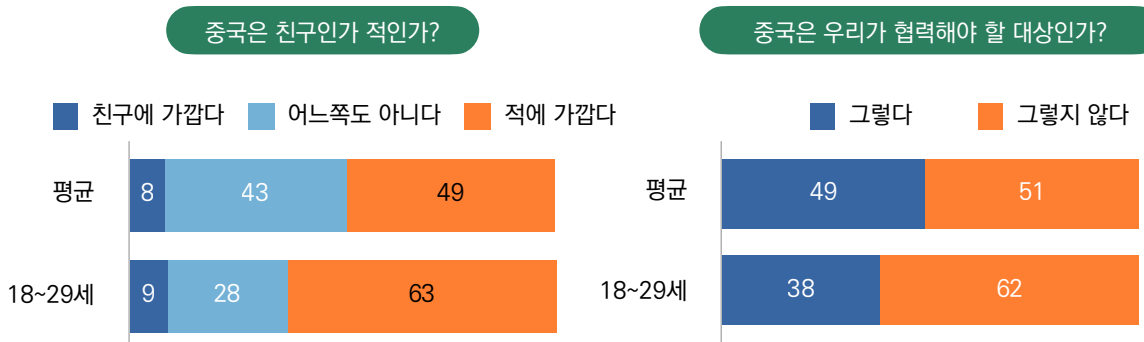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제163-1호(2022.01.12.),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1.7~10일)
 **감정온도 : 0도-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 50도-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

◎ 20대, 중국은 적에 가깝다 63%

- ▶ 전반적인 여론은 중국은 친구가 아니라 적에 가깝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적에 가깝다는 인식은 20대에서 크게 높다.
- ▶ 아무리 중국이 싫더라도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국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 전체 국민은 이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49%). 하지만 20대는 38%만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다수는 그렇지 않다(62%)고 응답해서 대체로 적대적 감정을 내비치고 있다.

[그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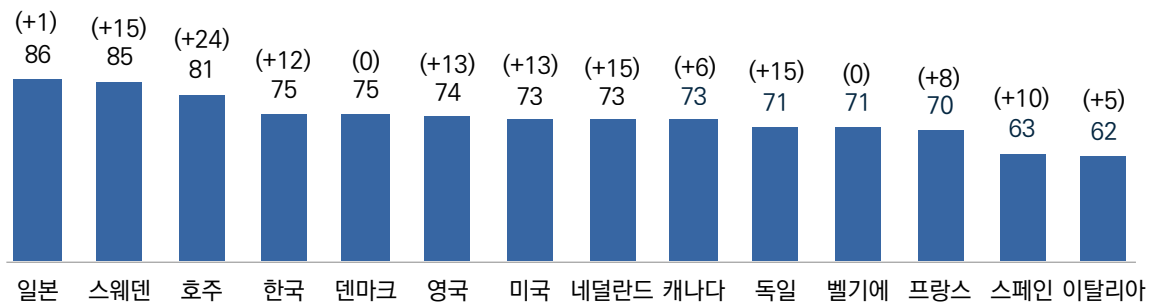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시사인 717호, '반중정서 리포트'(2021.6.15.), '20대는 왜 이렇게 중국을 싫어할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25>) 이 기사의 조사 자료는 <한국리서치,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1. 5월12일~17일 조사>에 근거함.

04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비호감도,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

- ▶ 미국의 퓨리서치가 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여름에 세계 경제선진국 1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세계인 모두가 중국에 대해 매우 높은 비호감도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인 19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코로나19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비호감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각 국별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일본, 스웨덴, 호주가 각각 80%가 넘었고, 한국은 4번째로 75%였다.

[그림] 중국에 대한 경제선진국의 비호감도(경제선진국 14개국, %)**



*자료 출처 : 미국 퓨리서치, '중국에 대한 경제선진국 14개국 호감도 조사', 2020.10.06. (경제선진국 14개국 국민 성인남녀, 총 14,276명, 전화조사, 2020.06.10.~08.03)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비호감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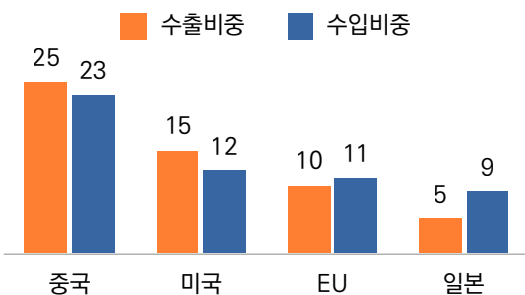
*** ()안은 2019대비 2020년 비호감도 증감 비율임

05

한국 정부의 딜레마, 국민적 대중국 비호감도 치솟고 있는데, 무역 의존도는 1위!

- ▶ 일반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치솟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고, 실제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 역시 미국 다음으로 많은 235만 명이나 있기 때문이다.
- ▶ 올해 대선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중국 외교력이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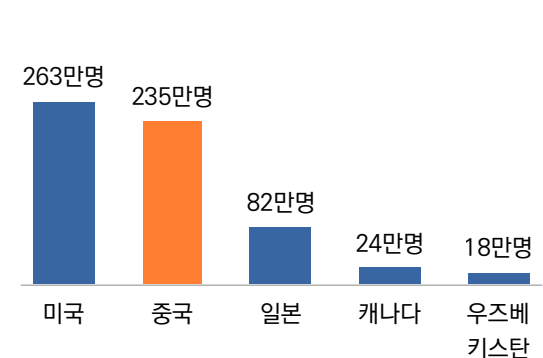
[그림] 2021년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별 수출입 비중 (단위 : %)**



*자료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각 연도, (e-나라지표)

**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입 금액 중 해당국의 수출입 비중임

[그림] 주요 국가별 한국 교민 수(상위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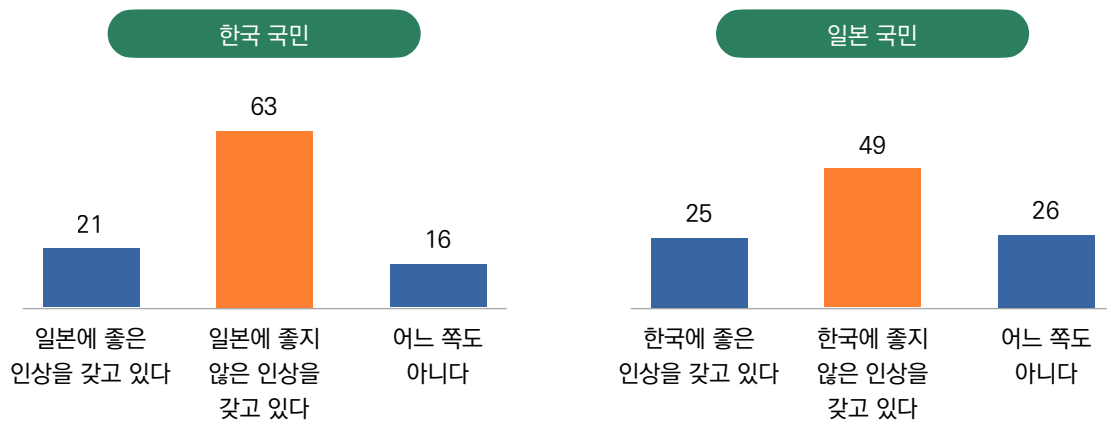
* 외교부 사이트, 재외 동포 현황

06

한-일 양국 국민 서로 싫어한다!

- ▶ 한국 국민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좋은 인상' 21%, '좋지 않은 인상' 63%로 좋지 않은 인상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 ▶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상도 '좋은 인상' 25%, '좋지 않은 인상' 49%로 역시 좋지 않은 인상 비율이 더 높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상대국을 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일 양국의 상대국가에 대한 인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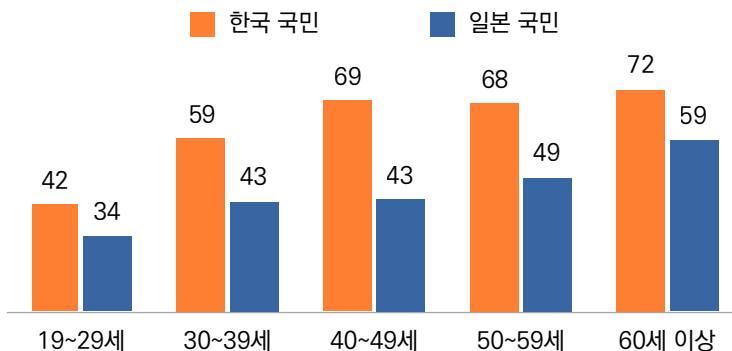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 '2021년 제9회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2021.9. 28,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한국 1012명 일본 1000명, 한국-대면면접조사 일본-방문유치회수법, 한국-2021.8.26.-9. 11 조사, 일본-2021 8.21~9.1 12 조사)

07

한-일 양국 20대 젊은층, 상대국에 대한 비호감도 줄어들고 있어!

- ▶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은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6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비해 20대는 42%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 ▶ 일본도 30대 이상에서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비율이 높았는데 20대에서는 34%로 완화된 결과를 보였다.
- ▶ 양국 모두 20대에서 상대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감정이 줄어들고 있다.

[그림] 한-일 양국의 상대 국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 비율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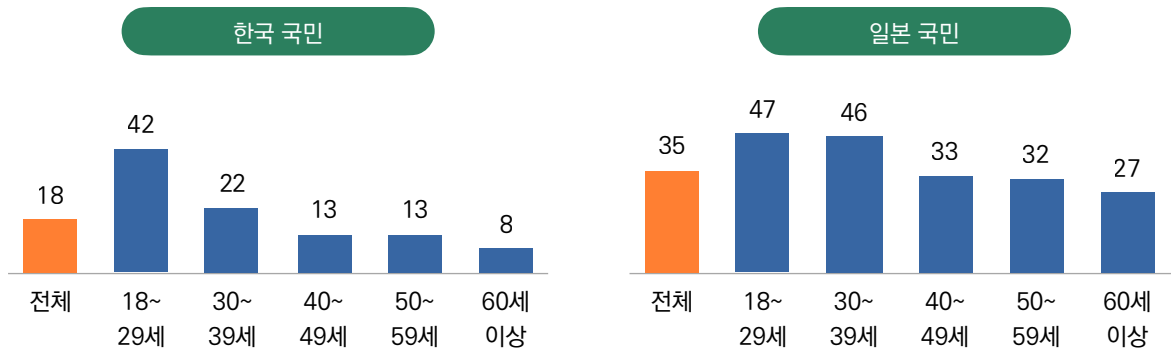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 '2021년 제9회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2021.9. 28,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한국 1012명 일본 1000명, 한국-대면면접조사 일본-방문유치회수법, 한국-2021.8.26.-9. 11 조사, 일본-2021 8.21~9.1 12 조사)

◎ 20대층의 상대국 대중문화 소비 높아!

- ▶ 한-일 양국 국민은 상대방 대중문화를 즐기는 비율이 한국 국민은 18%, 일본 국민은 35%로 높지 않았다.
- ▶ 그러나 세대별로 보면 20대를 중심으로 상대국가의 대중문화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일본이 상대 국가의 대중문화를 즐기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그림] 한-일 양국의 상대국가 대중문화를 즐기는(매우+약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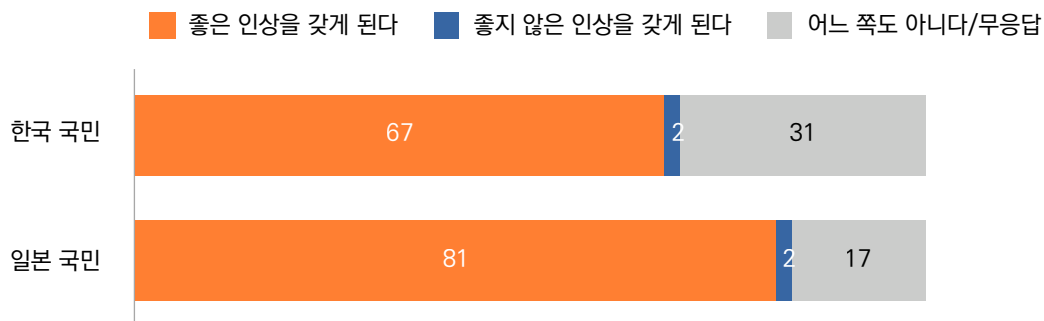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 '2021년 제9회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2021.9. 28,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한국 1012명 일본 1000명, 한국-대면면접조사 일본-방문유치회수법, 한국-2021.8.26.~9. 11 조사, 일본-2021 8.21~9.1 12 조사)

◎ 대중문화가 양국 호감도 높여!

- ▶ 상대국 대중문화를 즐기게 되면 상대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 ▶ 한국 국민 가운데 일본 대중문화를 즐기는 사람의 67%가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는 일본 국민 가운데 81%는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 ▶ 위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양국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은 대중문화 소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림] 한-일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상 (상대국 대중문화 즐기는 응답자, %)



*자료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 '2021년 제9회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2021.9. 28,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한국 1012명 일본 1000명, 한국-대면면접조사 일본-방문유치회수법, 한국-2021.8.26.~9. 11 조사, 일본-2021 8.21~9.1 12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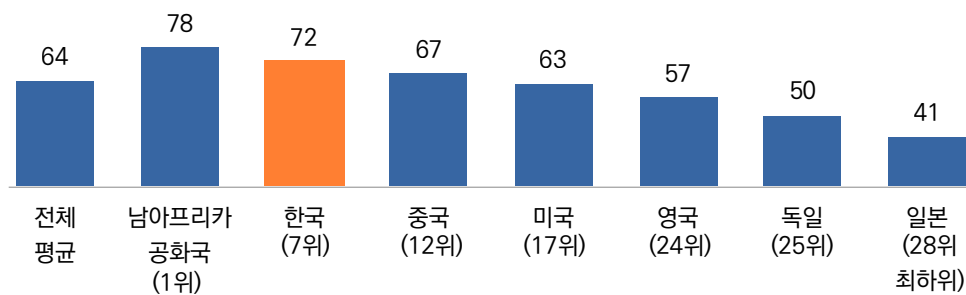
- 1.[AI에 대한 세계 28개국 인식 조사]
- 2.[국내 다문화 학생 수 변화 추이]



한국인, '인공지능(AI) 잘 안다' 세계 28개국 중 7위로 중상위권!

- ▶ 글로벌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최근 발표한 세계 28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AI에 대한 글로벌 의견 및 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3 가량(64%)이 '인공지능'에 대해 그 내용과 특성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인공지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78%로 28개국 가운데 1위였으며, 한국은 7위(72%)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41%(28위)로 가장 낮았다. 그밖에 중국 67%(12위), 미국 63%(17위), 영국 57%(24위), 독일 50%(25위) 등으로 한국보다 낮았다.

[그림] '나는 인공지능(AI)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렇다 비율(28개국 대상, 주요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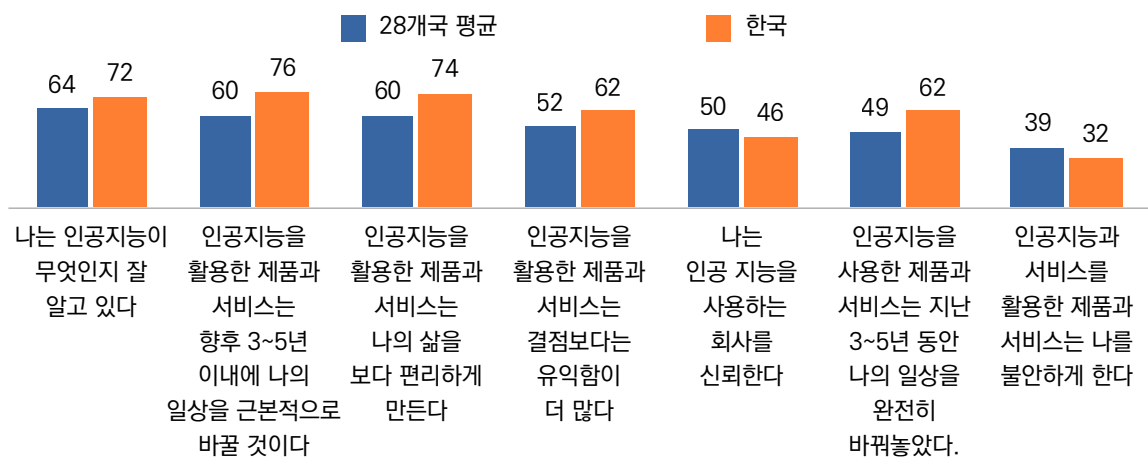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입소스, 'AI에 대한 글로벌 의견 및 기대 조사', 2022.01(세계 28개국 16~74세 19,504명, 온라인조사, 2021.11~12)

◎ 한국인, AI 이용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거부감/불안감 낮아!

- ▶ 한국의 경우 '인공지능을 잘 알고 있다' 72%와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과거 3~5년간 나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향후 3~5년 이내에 나의 일상을 바꿀 것'이라는 인식이 28개국 나라 평균을 웃돌았다.
- ▶ 반면 '인공지능을 사용한 제품과 서비스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이 세계 평균(39%)보다 낮게(32%) 답했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AI 제품 및 서비스 사용에 관심이 많고, 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및 불안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그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동의한다 비율, 28개국 평균과 한국 평균, %)



*자료 출처 : 입소스, 'AI에 대한 글로벌 의견 및 기대 조사', 2022.01(세계 28개국 16~74세 19,504명, 온라인조사, 2021.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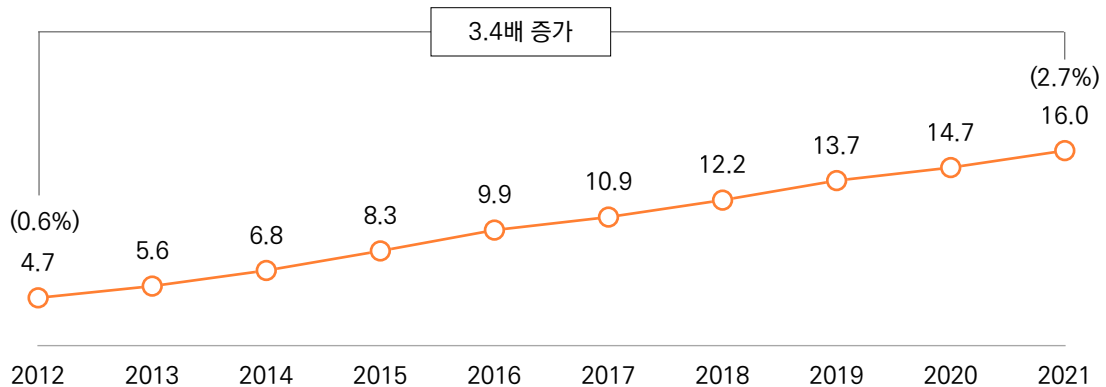


국내 다문화 학생 수, 9년 새 3.4배 증가

-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다문화 학생수는 16.0만 명으로 9년 전(2012년) 4.7만 명과 비교해서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2021년 국내 전체 학생 수(596만 명) 대비 다문화 학생 수(16만 명) 비율은 약 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상으로는 작아 보이나 통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2012년 0.6%→2021년 2.7%)이기에 앞으로 다문화 학생 및 가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연도별 다문화 학생 수(2012~2021)

(단위 : 만 명)



*자료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20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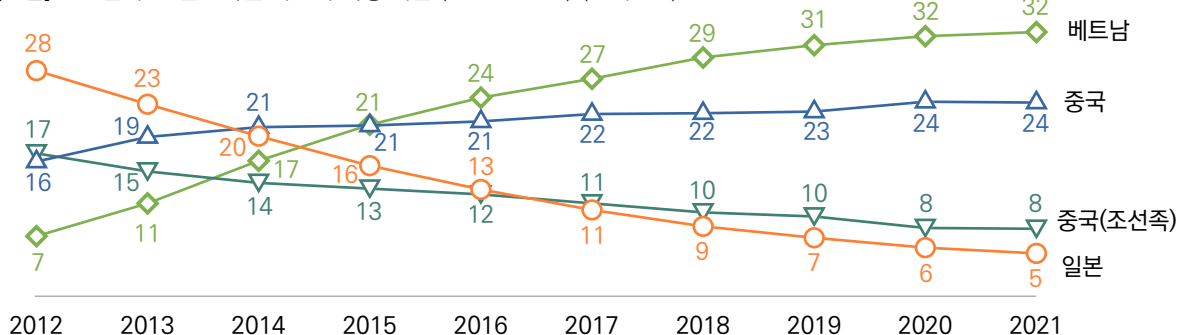
**다문화 학생수 =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중도입국 자녀)+외국인가정 자녀

*** ()안은 전체 학생수 대비 다문화학생 수 비율임

◎ 부모 출신국 : 베트남 1위, 중국 2위

- ▶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 학생 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일본과 7%였던 베트남이 2021년에는 상황이 뒤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 ▶ 2021년 베트남은 1위(32%)로 올라섰고, 일본(5%)은 중국(24%), 중국(조선족)(8%) 다음에 위치하며 그 비중이 급감하였다.
- ▶ 또한 중국의 경우, 2012년에는 중국과 조선족이 비슷한 비율이었는데, 2021년에는 조선족(8%)이 크게 줄고, 중국(24%)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연도별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 학생 비율 (2012~2021) (단위 : %)



*자료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2021.12.

** 연합뉴스, 2022.02.01. '다문화학생 16만명, 9년새 3배...초등 4.2% 베트남계 32%로 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8157500530?section=search>)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82호\(2022년 2월 2주\) - 대선 후보 지지도, 정당지지도 등](#)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64호\(2022년 2월 2주\)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등](#)

[2030 스스로 "우린 정치병자"...강한 보수 男 30%, 女 10%](#)

중앙일보_2022.02.10.

◎ 사회 일반

["1,000조원 시장 놓칠 수 없다"... 메타버스에 진심인 빅테크들](#)

한국일보_2022.02.03.

[게임을 모르는 자, 미래산업 접속불가](#)

조선일보_2022.02.10.

[MZ세대 20% "친구가 없다"...전세계 '외로움 위기' 주의보](#)

매일경제_2022.02.02.

[文정부서 상위 10% 소득 1천429만원 ↑, 하위 10%는 17만원 ↑](#)

연합뉴스_2022.02.15.

['밤 9시 땡' 하면 사장도 직원도 어플 켜고 '라이더'로 변신](#)

노컷뉴스_2022.02.09.

[혼술의 즐거움? '1인가구'는 지금 많이 아프다](#)

헬스조선_2022.02.08.

[60세 정년 지나도 일한다...생산인구 급감에 고용연장 본격 논의](#)

매일경제_2022.02.10.

[저출산 후폭풍...5년새 대학생 24% 병역대상 30% 줄어든다](#)

중앙일보_2022.02.11.

['빚으로 버티기'...가계대출보다 더 빠르게 느는 자영업자대출](#)

연합뉴스_2022.02.13.

[돌봄이 필요하니 사람들... 급증하는 노인도, 장애인도 '공공 돌봄' 목마르다](#)

한겨레_2022.02.14.

[질병청 "흡연자 폐암 발생위험 20대 1%→60대 68%"](#)

연합뉴스_2022.02.14.

◎ 경제

[450만원 사넬백 산뒤 "공짜죠"...가성비 계산법이 달라졌다](#)

중앙일보_2022.02.10.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인재에는 정년 없다"](#)

연합뉴스_2022.02.13.

[사람인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1위는 삼성전자...2위는 카카오"](#)

연합뉴스_2022.02.14.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독교 / 종교**

[개신교인 4명 중 1명 “5년새 점 본 적 있다”](#)

[국민일보_2022.02.09.](#)

[60대 리더 주축 교회… MZ세대 ‘소통 소외감’](#)

[국민일보_2022.02.11.](#)

◎ **기획기사1 : 2022 한국교회 트렌드 (기독교연합신문, 아이굿 뉴스)**

[1. 기술혁신이 가져올 미래변화… “실용적 대처와 본질 둘 다 놓쳐선 안돼”](#) _2021.12.31.

[2. 재난일수록 소그룹 사역 더 주목해야…“가장 성경적 대안이다”](#) _2022.01.05.

[3. 교회 재정, 이제 건물이 아닌 섬김으로 향한다](#) _2022.01.14.

[4. ‘목회’ 사역의 틀을 깨다, “일터에서 맘 흘리며 복음 전파”](#) _2022.01.19.

◎ **기획기사2 : 2022 신년기획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매일경제)**

① **MZ세대 서울로 떠난다**

[“인 서울 못하면 낙오자 시선”…2030 지방 탈출 줄짓는다](#) _2022.01.10.

[대구 동성로·부산 남포동도 텅 비었다…지방상권 공실, 서울 4배](#) _2022.01.10.

[SRT의 역설…서울 병원·학원 북새통, 지방은 폐업](#) _2022.01.10.

[부산,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2030세대 1만명씩 서울로](#) _2022.01.10.

[年3만 청년 떠나니…지방 광역시 불 꺼져간다](#) _2022.01.10.

② **기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개도 돈 물고 다니던 이 동네, 이젠 들 중 한명 백수…문닫은 지방공장 4배 쏙](#) _2022.01.13.

[기업들 짐싸거나, 망하거나…뚝뚝한 일자리 멸종위기 부산 대구](#) _2022.01.13.

③ **지방대학 날개 없는 추락**

[교직원 월급도 못주는 지방대…25년뒤엔 60% 사라질판](#) _2022.01.16.

[“유령 나올라” 전국 초중고도 3855곳 폐교…10%는 '흉물'로 방치](#) _2022.01.16.

[작년 9곳·올해 16곳…지방대 미달 사태 확산](#) _2022.01.16.

④ **35년째 헛도는 지방 공약**

[15년 된 전국 혁신도시…지금도 주말만 되면 '텅 빈 도시'](#) _2022.01.19.

[알맹이 없는 '지방 살리기' 대선 공약…SOC정책만 재탕·삼탕](#) _2022.01.19.

⑤ **소멸위기 벗어날 해법은**

[부울경 메가시티 상반기 출범…지역 살릴 묘수될까](#) _2022.01.23.

['인구 500만' 광역지방정부, 덴마크급 유럽강소국 될것](#) _2022.01.23.

[승강기 전문대학 키운 거창…기업 몰리고 인구감소 멈췄다](#) _2022.01.23.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만나교회, 문호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학교,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올림교회, 이름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탐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해설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핏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자인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운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익숙,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한진광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연구소 소식 |



2021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 전체를 모아 엮은, <2021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Vol.3>을 출판하였습니다.

출판 이벤트로 신청하시는 100분께 추첨을 통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신청을 눌러 받으실 성함, 전화 번호, 우편 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신청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